

전이성 폐종양의 수술적 체험

박종호, 성숙환, 김주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81년 5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원발성 종양의 절제후에, 폐이외에 다른곳으로 전이된 증거가 없으면서 절제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29명의 전이성 폐종양 환자를 체험하였다. 29명중에 26명의 환자에서는 전이된 폐종양의 절제가 가능하였고, 나머지 3명에서는 술전에 미쳐 발견하지 못한 흉막등의 동반된 전이나, 양폐의 전체적인 전이 등으로 수술적 제거가 불가능 하였다.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남녀비는 12:14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3.3 ± 17.9 (평균 \pm 표준편차)세 이었다. 환자들의 주증상은 술후 추적과정에서 증상없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1명), 다음으로 흉부동통(2명), 호흡부전(2명), 각혈(1명) 순이었다. 원발성 종양 제거후에 폐로 전이된 기간은 평균 32.2 ± 29.9 개월이었다. 26명의 원발성 종양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colorectal carcinoma 6명, osteosarcoma 5명, renal cell carcinoma 3명, breast carcinoma 3명, leiomyosarcoma 2명 이었으며, choriocarcinoma, lung carcinoma, chondrosarcoma, cervical carcinoma, stomach carcinoma, submandibular gland carcinoma, parathyroid carcinoma가 각각 1명씩 이었다. 폐의 전이를 확인한후 이를 제거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3.4 ± 2.8 개월 이었다.

수술적 절제술은 26명의 환자에서 28차례 시행하였다. 즉 2명의 환자에서는 각각 2차례의 절제술을 시행 하였다. 28차례의 수술을 살펴보면 단순한 췌기절제술이 18례, 폐엽절제술이 7례, 그리고 일측폐 완전절제술은 3례 시행하였다. 접근방법은 흉강절개술이 24차례, 그리고 흉골정중절개술을 4차례 시행하였다. 전이된 종양의 수는 한개인 경우가 14례로 가장 많았고, 두개인 경우가 8례, 세개인 경우가 2례, 그리고 다섯개 이상의 다발성인 경우가 3례이었다. 일측폐로의 전이가 22례이었고, 양측폐 전이의 경우는 5례이었다. 일측폐 전이의 경우 우측과 좌측의 비는 12:10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p > 0.05$).

26명의 환자중에 22명의 추적이 가능하였고 4명은 외래 추적중 소실되었다. 평균 추적기간은 12.8 ± 11.5 개월 이었다. 평균생존률을 살펴보면 6개월 생존률이 72%, 1년 생존률이 54%, 그리고 1년 6개월 생존률은 26%이었다. 추적이 가능한 22명의 결과를 보면 17명은 사망하였고, 5명은 생존하였다. 생존군중에 4명은 재발 및 전이의 증거가 없었으며, 한명은 재발된 상태이었다. 사망군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전신 전이로 사망한 경우가 11명이었고, 뇌출혈 2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26명의 환자를 원발성종양 제거후 폐로 전이를 일으킨 기간에 따라 두군으로 나누어 생존률을 비교하였다. 술후 1년안에 전이를 일으킨 환자들의 1년 생존률은 15.6%에 불과하였으나, 1년후에 전이를 일으킨 환자들의 1년 생존률은 57.6%이었다($p = 0.087$, Log-Rank Test).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전이성폐종양의 제거술은 좀 더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하며, 특히 1년이후에 전이를 일으킨 경우는 예후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